

오늘은 스승의 날... 교사들은 '한숨만'

“의미 퇴색... 차라리 폐지했으면”

교사들 사이에서 '스승의 날'에 대한 폐지 요구가 나오고 있다. 사실 상 교권이 추락한 지 오래인 상황에서 스승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기념일이 의미가 퇴색해버렸다는 자조 섞인 표현이다.

15일 청와대 게시판에는 스승의 날을 폐지해달라는 청원 글이 다수 올라와 있다. 전날 청원 게시판에는 “스승이 없는 스승의 날은 차라리 폐지 또는 휴일 지정 하여 주십시오”라는 글이 올라왔다.

지난달 20일부터 진행 중인 ‘스승의 날을 폐지하여 주십시오’라는 청원에는 1만명 이상이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이외에도 “스승의 날 폐지 청원” “스승의 날 폐지” “스승의 날을 폐지해주세요...” 등 비슷한 청원 글이 다수 게시됐다.

청원 글 내용은 대부분 추락한 교권과 관련해 “더 이상 스승인 교사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등 스승의 날 자체의 존재 의미가 없어졌으니 차라리 폐지해달라는 취지다.

일례로 가장 많은 동의를 구한 스승의 날 폐지 청원 작성자는 “모든 책임을 학교에 떠넘기며 교사를 스승이라는 프레임에 가두어 참고 견디라고 하면서 교사는 있지만 스승

“교육 현장에 스승 없어진 지 오래”...靑 청원 붐몰 “존중받지 못하고 방어권조차 행사 못하는 존재 학생들과 유대감 없는 상황에서 표면적인 행사” 전문가들 “교권 인정 풍토 조성 보호장치 만들어야”

이 없다는 말은 또 아무렇지 않게 합니다. 왜 이 조롱을 교사들이 받아야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라고 적었다.

본인을 ‘17년차 고등학교 교사’라고 밝힌 청원글 게시자는 “교육 현장에 스승이 없어진 지는 이미 오래입니다” “지금 교육 현장의 젊은 교사들은 억척 같은 오해와 지탄을 받으며, 학생과 학부모에게 존중받지 못하고 스스로의 방어권조차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면서 하루를 간신히 버텨나가고 있습니다”라고 썼다.

아울러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스승의 날 선물과 관련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해석 관련 문에 “학생 대표 등의 공개적 케네이션 선물만 가능하다는 원칙이 자리 잡길 바

라”라고 답변을 내놓으면서 논란이 배가되는 모습이다.

시민들은 권익위 해석을 두고 온라인에서 “스승을 도둑처럼 취급하니 차라리 스승의 날을 폐지하라” “그런 케네이션을 어느 교사가 받고 싶겠나” “대표만 케네이션을 줄 수 있고 편지나 종이접기 꽃도 지양하라”는 권익위 해석은 교사의 마음을 돈으로만 움직일 수 있다는 자급한 인식” 등의 개탄 섞인 목소리를 냈다.

전직 교사들 역시 스승의 날을 비판적인 관점에서 바라봤다. 보여주기 식 행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교사의 역할을 보장할 수 있는 조치를 하는 것이 오히려 스승의 날이 담고 있는 의미를 살리는 길이라는 것이 이들의 목소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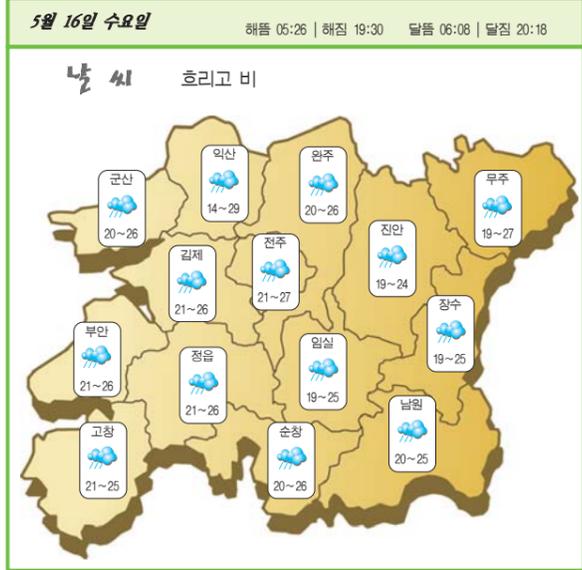
교사들이 직접 스승의 날에 대한

폐지 요구에 나선 배경에는 추락한 교권이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지난 9일 ‘2017년 교권회복 및 교직상담 활동실적 보고서’에서 지난해 접수된 교권 침해 사례가 508건에 이르렀다고 발표했다.

교총은 “교권 침해 사건은 2010년대 초반까지 200건대로 접수되다가 2012년 처음으로 300건대를 넘겼다. 이후 2014년 439건으로 400건대, 2016년에는 572건으로 처음으로 500건대를 넘었다”라고 분석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스승의 날 폐지 논란까지 등장한 것에 문제의식을 갖는 견해가 있다. 이들은 문제의 원인을 교권 추락으로 진단하면서 “학생 인권”에 대한 접근만큼 교사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우리 사회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김희규 신라대 교육학과 교수는 “교권 풍토를 조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학부모들의 공동체적인 참여는 중요하지만, 교원의 전문성 자체를 불신하고 인정하지 않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라며 “교권을 인정하는 풍토를 조성하고 제도적으로 교권 보호에 대한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뉴스



전라중 3학년 진로여행 프로젝트 발표

전주시는 전주형 창의교육인 야호 학교에 대한 청소년들의 관심을 높이고, 학생들이 스스로 친구들과 해보고 싶은 활동을 기획하고 직접해보면서 창의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 ‘학교 연계 특화 프로젝트’의 첫 번째 프로젝트를 완료하고 발표회를 열었다. 발표회는 15일, 전라중시청강실에서 전라중학교 3학년 학생 60명과 야미(야호학교 알라미)단 등 관계자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2시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상 속에 숨겨진 결코 순탄치 않았던 프로젝트 진행 과정 안에서 느꼈던 즐거움, 어려움 등을 서로 나누고 격려하는 시간으로 전문 진행자 안정진씨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참여자 점원의 현장투표와 심사위원 점수와 프로젝트 진행과정 점수를 합산해 고득점 순으로 순위가 선정되었으며, 순위별로 학교에서 마련한 상품이 지급되었다.

박재열 전주시 교육청소년과장은 “처음 시도된 학교 연계 프로젝트가 잘 마무리되어 기쁘다. 최선을 다해 참여해준 야미단과 전라중 관계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이번 성과를 기반으로 더 많은 청소년들에게 참여 기회를 주기 위해 관내 학교와 연계 노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반

전주푸드에서 농가체험 전주동초 '지금 전주' 참여

(재)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센터장 강성욱)는 15일 스승의 날을 맞아 전주동초등학교 교사와 학생 등 40여명과 함께 전주푸드 3차 식교육 '지금 전주'를 진행했다. '지금전주'는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에서는 올해로 3년째 소비자 식생활 개선을 위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6차산업 활성화 교육이다.



(재)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는 15일 스승의 날을 맞아 전주동초등학교 교사와 학생 등 40여명과 함께 전주푸드 3차 식교육 '지금 전주'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전주푸드의 친환경농산물 주요생산자인 전주시 금상동 일대 친환경농업단지를 방문해 전주시 초·중고에 공급되고 있는 학교급식 농산물의 재배현장을 견학하고, 재배 중인 농산물을 직접 수확하는 등 체험위주의 현장교육으로 진행됐다.

특히, 학생들은 현장에서 친환경농산물을 재배하는 농가들을 직접 만나 안전하고 신선한 전주푸드 농작물 재배 환경과 먹거리의 중요성 등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기동취재반

‘자연과 생명, 그림책 속에’

전북교육문화회관, 내일부터 그림책 원화전

전라북도교육문화회관이 ‘그림책이 들려주는 자연과 생명이야기’를 주제로 그림책 작가 유리의 작품 및 전시물을 만나는 2018년 그림책 원화전을 개최한다. 도라지 꽃 언덕 너머 나지막한 숲에서 태어나고 자라 자연에서 보낸 어린 시절이 작가의 큰 자산이 됐다는 생명을 그리는 작가 유리는 ‘수박이 먹고 싶으면’, ‘대추 한 알’, ‘돼지 이야기’ 등의 그림책을 그렸다.

이번 원화전은 오는 17일부터 6월 15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북교육문화회관 제2전시실에서 열린다. 자연과 생명에 대한 작가의 작품 활동 여정이 고스란히 스며있는 그림책 3권의 원화 60여 점이 전시되며, 더미북, 드로잉 70여점 등이 작가의 책상에 펼쳐진다. 개별관람은 전시기간 중 무료로 가능하며, 오전 10시, 11시, 오후 2시, 4시에 관람하면 전시 해설 및 작품 설명을 들을 수 있다. /기동취재반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 The block features a scenic landscape with green hills and trees under a blue sky, with text promoting environmental awareness.